【서식 5】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지원동기

21년 8개월 동안 교단에 서며 가장 자주 품었던 질문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학령인구와 농어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농업계 고등학교를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준비할 곳으로 선택하려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첫 발령을 받은 지 4년 만에 부장 업무를 맡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육과 취업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2년간 동료 교사들과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하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교사 연수와 실습실 구축 계획을 마련하며 전국 유일의 종자·식품 분야 농업계 마이스터고 지정을 주도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 사업과 중기청사업에 기반한 취업 지도를 맡았으며, 혁신지구 사업 선정을 통해 학교 공간 재구성과 실험실습실 정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첨단시설과를 스마트팜산업과로 개편하고 새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정한 방향이 실제 수업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교사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과 연수, 실습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로 새롭게 도약하는 (가칭)케이팜고등학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AI 기반 스마트농업 고등학교로 만들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교장이 된다면 교직원과 함께 AI 기술을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수업과 실습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기업과도 힘을 모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기술을 현장실습과 취업으로 이어 가고, 남원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 성장 배경

1남 2녀 중 둘째인 저는 어릴 때 부끄러움이 많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제 능력을 가늠하곤 했는데, 대학에서 농업토목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교수님들은 어려운 내용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 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잘했다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학과 조교로 일할 때 제가 맡은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신 교수님들은 저를 농업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직에 들어선 뒤,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때의 일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제게 그랬던 것처럼 학생에게도 작은 성취를 알아봐 주는 말 한마디가 다음 도전의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교장이 된다면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찾아가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 **교사생활**

2005년 임용되어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배운 것이 눈에 보이는 성취로 이어지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토목과 2학년 수업에서 건설재료 분야 기능사를 지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3학년 의무검정에 앞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일이 낯설었지만, 자격증에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본 뒤로, 교과를 맡거나 담임을 할 때도 기능사 자격 취득을 꾸준히 지도해 왔습니다.

인성교육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생활 태도를 지도하는 일은 지금까지도 제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성실한 학교생활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학생들과 무수히 나누었습니다. 학급 규칙을 꾸준히 지키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단기간의 지도로는 어려운 일이기에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날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의젓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과 실기 역량을 함께 지도해 온 노력은 취업과 대회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졸업생 취업률은 92.3%였으며,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차례 금·은·동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대회에서 금상(1위)인 장관상을 받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쌓은 실력과 일상에서 기른 성실함이 학생들의 졸업 후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데 든든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교육철학**

어머니께서는 제게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어려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작은 성취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신감을 얻었고,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임용을 앞두고 신규 교사 연수에서 미래의 나에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겠다'는 편지를 쓴 기억이 납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 때 제가 먼저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단에서 보니 학생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어려워하는 학생들과는 막히는 부분을 찾아 기초부터 다시 풀었고, 생활지도에서는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 졸업 후에도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함께 정한 학급 규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차츰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도 과제를 직접 해낸 경험은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바탕입니다. 저 역시 기초 문제 하나를 스스로 풀거나 실습 과제 하나를 끝까지 마친 경험이 학생에게 다음 도전의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교장이 된다면 담임과 교과 교사가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수업과 실습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과제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졸업할 때 학교에서 자기 힘으로 해낸 일을 떠올리며, 다음 걸음을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학교 운영 포부

(가칭)케이팜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학생들이 남원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의 강점을 살려 교직원과 지역 협력기관이 함께 AI 기반 스마트농업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거쳐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학과 체험과 진로 안내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겠습니다. 중학생에게 전공 수업과 스마트농업 실습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과별 교육과정과 취득 자격, 졸업 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입학 전 학과 선택부터 자신의 적성을 살피고 진로를 설계하는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농업현장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소양을 기르겠습니다. 외국어로 된 장비 설명서를 읽고 실습 결과를 소개하는 활동을 수업에 담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작업 방식을 이해하고 동료와 협력할 수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일찍 살펴 학업 중단을 예방하겠습니다. 출결과 수업 참여에 변화가 보이면 담임·교과 교사·상담 담당자가 함께 살피고, 학생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학습 보충이나 진로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받아 배움을 이어 가는 학생을 기르겠습니다.

넷째, 학과별 경력개발 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년별 교과와 자격 취득, 현장실습을 취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고 남원에서 경력을 쌓아 갈 직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초학력을 AI 기반 스마트농업 실습과 연결하겠습니다. 수치와 그래프를 읽는 기초부터 센서로 측정한 온도와 습도를 해석해 재배 환경을 판단하는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졸업생 인증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직업공통능력, 전공 자격·실무 역량, 외국어 능력, AI·디지털 활용 능력, 기본 소양의 다섯 영역에 단계별 성취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충 학습과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단계별 배지와 장학금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꾸준히 발전시키는 직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교장으로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마트농업 담당 교원의 연수를 우선 지원하고, 교육과정에 맞춰 교원 초빙과 산학겸임교사 확대, 원어민 교사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마다 교직원과 우선 과제를 정해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과 실습 성취, 졸업 후 진로를 지역 협력기관과 함께 살펴 다음 해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르고 싶은 학생은 배운 기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 기술을 사람과 사회를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원의 농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내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장으로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